

북한의 사회통제 담론과 문화냉전의 논리*

— ‘풍속’ 관련 담론들을 중심으로 —

한재현(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전문연구원)

논문요약

본 논문은 북한의 풍속 관련 담론의 구조와 논리들을 문화로서의 냉전과 냉전의 사회질서의 구축, 그리고 정념의 내셔널리즘의 구획 등을 통해 살펴보았다. 풍속의 검열과 단속은 북한의 국가형성과 체제형성의 거대한 운동 속에서 ‘근대화’와 ‘사회주의적 인간형’을 목표로 일상과 문화의 영역을 매개로 북한주민의 ‘주체성’을 특정한 방향으로 형성해가는 과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었다. 그러한 ‘근대화’의 과정은 서구문화로 표상되는 ‘자본주의’에 대한 양가적 태도를 내재하는 것으로서 한편으로 물질적 근대화에 대한 열망을, 다른 한편으로는 고유한 민족적 정서와 미학, 정신 혹은 영혼의 망실을 우려하는 정념의 정치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풍속검열과 단속의 ‘주체화의 역학’은 식민과 일제 식민지 파시즘의 유산을 변형된 형태로 활용하는 것이고, 동시에 새로운 인간형을 형성하는 사회주의 근대화의 이념을 담고 있으면서, 또한 ‘퇴폐/문란함’을 미 제국주의-남한과 상징적으로 연관 짓는 특유의 문화냉전 및 내셔널리즘과 연계된 혼재된 형태의 통치 테크놀로지의 형성과정이었다.

주제어 : 북한, 사회통제, 문화냉전, 풍속, 내셔널리즘, 정념

* 이 논문은 통일부의 2017년도 신진연구자 정책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며, 통일부의 의무 조항에 따라 최종보고서의 일부를 2017년도 북한연구학회 동계학술회의에서 발표, 이를 수정·보완해 논문으로 제출하는 것임을 밝힌다. 유익한 논평과 제안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린다.

I. 서론

제90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과 감독상을 거머쥔 기예르모 델 토로 감독의 『셰이프 오브 워터: 사랑의 모양』(The Shape of Water, 2017)은 냉전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백인-군인-남성’으로서 주인공 스트릭랜드는 자신을 “신의 형상”을 띤 존재로 규정하면서 장애인-성소수자-흑인-여성 등으로 등장하는 마이너적 존재들을 상대로 노골적인 언어적·물리적 폭력을 행사한다. 스트릭랜드의 폭력은 ‘괴생명체’를 상대로 한 ‘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벌이는, 크리처의 ‘정체를 밝히기 위한’ 정기적 고문에서 정점에 이른다. 이처럼 이 영화는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를 중심으로 한 ‘폭력의 체계’와 이질성 혹은 비-규정성의 존재 사이로 스며들며 연대하고 교감하는 ‘사랑의 액체성(water, liquidity)’을 대비시킨다. 이러한 점에서 “사랑의 모양”을 말하기 위해 냉전시대를 배경으로 택한 감독의 선택은 의미심장하다. 어떤 명징한 개념과 언어로 형언할 수도 하나의 정체성으로 고정시킬 수도 없는 물의 본질은, 반드시 설명/진술되어야 하고, 격자(格子)화 된 감시의 시선 속에 갇혀 있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이질성을 정체성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폭력을 합법화하는 냉전의 체제가 결코 용인할 수 없는 존재의 성격을 상징하는 것이다. 즉, 괴생명체-마이너들의 연대 방식으로서 물의 세계는 의심스러운 존재를 견디지 못하는 정체성-정상성의 냉전-스트릭랜드¹⁾를 위협에 빠뜨리는 논리와 문화의 상징인 것이다.

이처럼 영화가 너무나 빼어나게 그려내 보여주었듯이 냉전은 하나의 논리이자 문화였으며 그러한 논리와 문화를 흔드는 일체의 사상, 정체성들, 문화조류들을 검열·차단하기 위한 규범의 총체였다. 북한의 역사 또한 이른바 ‘사회주의 미풍량속’과 ‘민족적 생활양식’으로 규정된 정상성의 체제를 위협에 빠뜨리는 온갖 ‘이색적인 조류’ 및 ‘자본주의 문화’의 ‘침습’, ‘감염’, ‘스며들’을 방어하기

1) 냉전질서를 상징하는 주인공 이름인 스트릭랜드(Strickland)의 음가(音價)가 strict-land 를 연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감독의 의도가 엿보인다.

위한 통제와 문화생산의 여정이었다. 해방 후 ‘건국사상총동원운동’ 당시 ‘생활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제시된 낡은 습관과 ‘풍속개혁’, 생산 활동에 맞춘 의복 개혁, 위생관념 형성에 대한 담론 등 ‘사회주의 근대화’ 프로젝트와 냉전분단의 체제 하에서 형성된 특유의 주체형성의 역학(dynamics) 속에서 이어져 온 권력기술의 변형된 모습들은 바로 그러한 문화생산의 실천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냉전문화의 실천은 ‘새로운 인간형의 창조’라는 이름으로 특유의 정상/병리의 체계를 구성하고 주체를 ‘생산’하는 과정과 밀접히 연관된다. 이른바 사회주의 모델도시로서 마그니토고르스크를 중심으로 볼셰비키 국가와 소비에트 주체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코트킨(S. Kotkin)²⁾의 연구를 보면, 스탈린국가는 전체주의적 폭력의 외피를 쓰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사회주의체제를 선도하는 언어, 생활양식, 상징 및 새로운 사회주의적 인간형을 창조해 낸, 다시 말해 단지 기존의 것을 ‘억압/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적 가치, 사회적 정체성 및 삶의 방식을 ‘생산’해 낸 체제였다. 코트킨은 이를 ‘하나의 문명으로서의 스탈린주의’라고 명명했다. 북한에서 ‘인민정체성 확립’이라는 ‘주체’의 이념은 매우 구체적인 일상적 공간과 문화적 실천을 겨냥하면서 구현되어왔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가 분석의 초점으로 삼는 ‘풍기문란’의 검열과 단속의 메커니즘은 북한의 국가건설과 체제형성의 거대한 운동 속에서 ‘근대화’와 ‘사회주의적 인간형’을 목표로 일상과 문화의 영역을 매개로 북한 주민의 ‘주체성’을 특정한 방향으로 형성해가는 과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풍기단속의 ‘주체화의 역학’은 식민과 일제 식민지 파시즘의 유산을 변형된 형태로 활용하는 것이고 동시에 새로운 인간형을 형성하는 사회주의 근대화의 이념을 담고 있으면서 또한 ‘퇴폐/문란함’을 미제국주의 및 남한과 연관 짓는 특유의 문화적 내셔널리즘과 연계된 다층적 형태의 주체화이기도 했다.

2) Kotkin, S. *Magnetic Mountain: Stalinism as a Civilization*. LA&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5.

II. ‘사회주의 미풍량속’ : ‘풍기문란’의 내셔널리즘과 정념(情念)의 배치

‘사회주의 미풍량속’, 혹은 그와 연계된 담론으로서 ‘민족적 생활양식’은 일제강점기 민족주의 지식인들의 탈식민 전략에 나타난, “전통의 윤리성”과 “생산성 높은 생활태도에 대한 강박적 집착”에 기반 한 “민족주의 정치기획의 풍기숙정(風紀肅清)”³⁾과 유사한 풍기문란의 내셔널리즘을 구축했다. ‘반미주의(anti-Americanism)’를 새로운 ‘사회주의 문화화’와 연관시킴으로써 전체주의적 통제를 문명한 생활양식을 위한 생활개선 프로젝트로 내면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풍기단속은 단순한 억압기제이기를 넘어 민족주의 정치기획의 문화적·일상적 통치 테크놀로지이자 문화생산의 규범이었다. 또한 풍기단속은 ‘풍기문란에 대한 통제’라는 자체의 목적과 더불어, 공동체를 위협에 빠뜨리는—우리가 흔히 ‘공공의 질서와 안녕’을 해치는 것으로 규정되곤 하는 행위들을 대상으로 한 법적·행정적 규제가 정당성을 득함으로써⁴⁾ “근대 국가의 통치가 통제와 감시가 일상생활의 영역까지 확장”⁵⁾할 수 있는, 다시 말해 ‘풍기문란을 통한 통제’가 된다. 이러한 통치 테크놀로지로서 북한의 풍기단속은 특유의 냉전의 감각, 정서, 혹은 정념(情念)의 배치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를 ‘사회주의 미풍량속’을 둘러싼 담론들을 중심으로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북한에서 말하는 사회주의 생활양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서로 돕고 이끌면서 혁명적으로 일하며 생활해나가는 고상하고 건전한 생활기풍”
 “우리 민족의 고상한 민족적감정과 정서를 그대로 체현하고있는 생활양식”
 “자주적인간의 값높은 삶을 빛내여주는 문명한 생활양식”⁶⁾

3) 김윤희, “한국 근대 신어 연구(1920년~1936년) : 일상·문화적 맥락을 중심으로.” 『국어사연구』 제10호, 2010, pp. 37~67.

4) “풍기문란자를 규정하는 담론 구조는 주권의 자발적 양도와 국가 개입의 정당성이라는 계기(혹은 순간)를 매번 다시 도입한다. 그런 점에서 풍기문란자는 사회 속의 ‘자연’이며, 늑대 인간이며 포함되면서 배제된 자(호모 사케르)이다.” 권명아, “정조 38선, 퇴폐, 그리고 문학사: 풍기문란의 냉전프레임.” 『여성문학연구』 22권, 2009, p. 222.

5) 김윤희, “근대 서울의 숲, 위험관리와 민족주의 정치기획.” 『사학연구』 제111호, 2013, p. 96.

요컨대, ‘집단주의’, ‘민족적 정서’, ‘문명한 생활’이라는 세 차원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북한은 자신들의 ‘고유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것을 ‘사회주의적 생활양식’과 배치되는 일체의 생활문화 및 태도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이른바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은 그 하위 구성담론으로서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와 ‘민족고유의 미풍양속’을 포함하며 그 실천적 방침으로서 ‘집단주의’적 삶의 태도와 일상규범 및 사회주의적법규범의 철저한 준수 등을 거론한다.⁷⁾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란 북한의 사회주의 제도를 ‘가장 우월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로서 자본주의적 ‘퇴폐문화’를 부정하고 일말의 “침습”도 허용치 않는 일상의 노력까지를 포함한다. 사회주의 체제와 제도에 대한 긍정을 민족주의와 결합시킨 것이다. 찰스 암스트롱은 이를 “형식은 사회주의, 내용은 민족주의”인 이데올로기로 요약한 바 있다.⁸⁾ 사회주의적 형식 속에서 민족주의적 내용을 구현하려는 이러한 태도는 민족적 전통 및 미풍양속에 대한 입장에서 ‘계승과 발전’의 문제를 제기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초기 북한은 사회주의적 삶의 양식에 배치되는 지난 시기의 “낡은 전통”, 특히 “일체의 잔재” “봉건적 유습”의 청산과 일체의 “북고주의”적 삶의 태도를 극복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표명한 바 있는 바, 핵심은 일체의 타락·퇴폐적인 것으로부터 새로운 ‘민주조선’의 문명개화한 생활양식을 ‘민족적 기풍’ 속에서 발견하고 일상 속에서 재전유하는 실천으로 표현된다.

“우리는 지난날 일본제국주의가 남겨놓고 간 모든 타락적이고 퇴폐적인 유습과 생활태도를 없애고 생기발랄하고 약동하는 새로운 민주조선의 민족적기풍을 창조하는 거대한 사상개조사업을 하여야 하겠습니까.”⁹⁾

6) “우리 식 사회주의생활양식의 우월성.” 『우리민족끼리』 2014년 3월 23일.

7) 사회과학출판사,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확립할데 대한 우리 당의 정책』,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

8) 찰스 암스트롱 지음, 김연철·이정우 옮김, 『북조선 탄생』, 파주: 서해문집, 2006, p. 268.

9) 김일성, “민주선거의 총화와 인민위원회의 당면과업.”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일성저작집』 제2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p. 426.

민족적 기풍의 호명은 일제잔재의 퇴폐·타락과 대비하는 감성의 분할, 혹은 정서적 내셔널리즘을 통해 이루어진다. 예컨대 해방 후 옷차림 정책을 들며, 민족적 기풍에 맞춰 “조선옷을 소박하면서도 맵시 있고 아름답게 지어 단정하게 차려입는 것”을, 그리고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의 요구’에 맞춰 “근로자들의 생활감정에 맞게 보다 편리하고 단정하게 개조발전”시킬 것을 주문하고 있다.

“옛날옷차림에서 여자조선옷은 좋은 점이 많았다. 예로부터 우리 여성들이 즐겨 입어오던 여자옷은 소박하고 우아하며 정결한 것을 좋아하는 우리 인민의 민족적 감정을 담고 있었다. …… 여자조선옷은 … 우리 인민의 생활풍습에 가장 잘 어울리는 옷이다 … 또한 만들기 쉽고 손질하기도 좋으며 입었을 때에는 앞고 서기 편리하여 조선여성들의 단정한 품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¹⁰⁾

“민족적인 것을 계승한다고 하면서 비활동적이고 비근로적인 옛날 옷차림을 그대로 답습하게 되면 옷차림을 변화된 시대적요구에 맞게 문화적으로 개선할수도 없고 나아가서 사회주의건설에서 혁명적 대고조를 일으키고 있던 근로자들의 투쟁에 저해를 줄수 있었다.”¹¹⁾

북한은 이처럼 ‘소박, 정결, 단정’한 ‘민족적-정서’를 ‘현대적-미감’과 결합시켜 개조하는 옷차림을 이후 내내 강조해왔고, 이는 풍속의 내셔널리즘이 안고 있는 감각적 배치를 압축적으로 표상하고 있다.

옷차림 정책을 둘러싼 담론의 예에서 보듯이 북한에서 풍속과 관련한 담론들은 특유의 이분법에 근거한 미학적 구획, 특히 정념의 통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전체주의체제는 대중의 코드, 그 중에서도 특정한 감성적 기제들에 다가감으로써 대중을 설득, 동원하는 체제였다. 즉, 전체주의는 논리의 체계가 아니라 정념의 응축물(덩어리)에 더 가깝다는 것이다.¹²⁾ 특유의 도덕관에

10) 백옥련, 『조선사회과학학술집163 민족학편 : 사회주의생활문화사연구』,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10, pp. 104~105, 109.

11) 백옥련, 위의 책, p. 104.

12) 정명중, “과시리즘과 감성동원: 일제하 ‘국민문학’에 대한 고찰.” 『호남문화연구』 제45집, 2009, pp. 342-

기반 한 특정한 감정 정념의 배제와 통합이야말로 북한체제가 사회와 주민을 통치하기 위한 주요한 기반이자, 통치기술(technology of government)이었다. 북한에서 풍속을 단속하고 검열하는 것은 불온한 신체와 정념을 정치화하는 방식으로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를 나누고 배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다. 즉 주체형성은 불온과 건전함을 구성하기 위한 특유의 미학적/감정적 분할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특유의 분할이 체제에서 용인 (불)가능한 ‘정치적인 것(the political)’의 영역을 확정하게 된다. 풍기단속이 ‘더러운 것, 퇴폐한 것, 추한 것, 아름다운 것’ 등의 미학적 분할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볼 때 풍기문란과 풍기단속의 문제는 ‘정념의 배치와 정치적인 것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유용한 매개가 된다.¹³⁾ 이 관계의 중요성은, 김정은시대에 들어와 뚜렷해지고 있는 문화와 생활양식의 ‘현대화’ 혹은 ‘서구화’ 작업의 함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활양식(풍속)을 둘러싼 문화정치의 내밀한 변화로서 미학적/감정적 분할과 배치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김정은시대의 ‘변화’를 ‘판별’하기 위한 비교준거로서 풍기단속의 논리와 메커니즘에서 나타나는 정념의 내셔널리즘을 분석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러한 감각의 분할, 정념의 배치가 정치적인 것과의 관련 속에서 중요해지는 것은 ‘풍기문란’ 또는 ‘미풍양속’의 개념이 지닌 ‘상호참조’의 역학, 그에 따른 ‘불확정성’의 본질과도 깊이 관련이 되는 문제이다. 풍기문란을 어떻게 범주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풍기문란과 미풍양속의 순환론적 상호 구성에 대한 권명아의 정리를 보면,

“풍기문란이라는 범주는 ‘사회통념’이나 ‘미풍양속’이라는 ‘기준’을

343(한제현, “일상의 사회통제체제와 권태로운 인민.” 박순성·홍민(편저), 『북한의 권력과 일상생활: 지배와 저항 사이에서』, 과주: 한울, 2013, p. 329에서 재인용).

13) 정념(passion)은 “심리학과 관계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주체성이 만들어지는 장소이며, 관계로서 주체성이 짜여지고 있는 일종의 사실관계들이다.” 안토니오 네그리 지음, 이기웅 옮김, 『전복적 스피노자』, 서울: 그린비 출판사, 2005, p. 219.

통해서 사회를 관리하고자 하는 여러 기제들을 통해서 생산·재생산된다. ... 이 다양한 기제들에서 ‘풍기문란’과 ‘미풍양속’이라는 기준이 작동하는 원리는 유사성을 보인다. ... 또 이 과정에서 특정한 집단은 문체적 집단으로, 특정한 집단은 ‘보호되어야 할’ 집단으로 간주된다. 어떤 점에서 문체적 집단과 보호되어야 할 집단의 경계는 모호하거나 일치한다.”¹⁴⁾

“풍기문란과 미풍양속의 관계는 방종(exousia)과 자유(eleutheria)의 관계와 유비적이라 할 것이다. ... 무궁무진하게 이어지는 방종의 목록의 작성 기준은 자유가 아닌 것을 규정하고자 하는 측정술, 혹은 지배의 기술이다. 그렇다면 자유를 규정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흥미롭게도 그것은 방종이 아닌 것이다. 즉 자유와 방종 사이에는 기묘한 순환론적 구조가 작동한다.”¹⁵⁾

따라서 풍기문란에 관한 규정은 사회의 통념, 즉 지배적인 정서와 누적된 상식과 도덕관념, 그리고 그것에 근거한 권력의 이데올로기-담론-법규범의 체계의 상호 관계 속에서 규정·재규정되는 모호하고 불안정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풍기문란의 규정을 둘러싼 이와 같은 맥락은 이데올로기-규범-가치관-형벌체계의 실정(實定)적 구획이 불명확한 북한의 범죄에 관한 형벌규정에 그대로 각인되어 있다. 북한에서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 조항을 설명하는 한 항목을 보면, “당 정책 집행을 태공하며, 사회주의 건설에서 건달을 부리고, 실속 있게 일하지 않는 행위”¹⁶⁾(강조는 인용자)를 규정하고 있다. 최근 들어 사상교양과 조직생활 중심의 사회통제에서 법적 통제로 강화되고 있기는 하나 그러한 법적 통제의 외연과 내포는 바로 “태공”과 “건달을 부리는” 또는 “실속 있게 일하지 않는” 행위와 같이 불명확한 도덕적 규준을 근거삼은 “무규정적 개념의 법제화”¹⁷⁾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다.

14) 권명아, “음란함과 죽음의 정치,” 『현대소설연구』 39집, 2008, p. 40.

15) 권명아, “정조 38선, 퇴폐, 그리고 문학사: 풍기문란과 냉전 프레임(frame)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22권, 2009, p. 219.

16) 최태석·박희진, “비사회주의적 행위유형으로 본 북한사회 변화,” 『통일문제연구』 제23권 2호, 2011, p. 74.

17) 권명아, “음란함과 죽음의 정치,” p. 43.

이처럼 ‘퇴폐적’인 것을 형벌규정 내부로 들여오는 것은 현실에 만연한 공식 규범 외적인 ‘일탈’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범형식이라는 명확성의 원리와 모호성을 접합하는 도덕적 규율권력의 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도덕적 규율화의 원리에서 아름답고 선량한 것이라는 미학적 분할, 즉 ‘미’풍과 ‘양’속을 구획 짓기 위한 민족적인 것의 정서적 구성이 나타난다. 예컨대, 북한의 담론에서 ‘생기발랄’하고 ‘약동’하는 ‘기풍’ 등으로 표현되는 민족적인 것과 연관을 갖는 것들로 ‘검손’, ‘소탈’, ‘검박’, ‘단정’, ‘고상한’ 것을 들고 있으며, 부정적 의미연관을 갖는 것들로 ‘퇴폐’, ‘타락’ 등을 들고 있다. 북한의 권력은 특히 ‘명랑함’을 강조하면서 ‘퇴폐’와 대립적인 것으로 구성하고 있다.

‘퇴폐’는 반미주의-냉전-분단체제의 규범을 가르는 풍기문란 규정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한다. ‘퇴폐[폐]’의 연관어로서 ‘퇴폐[폐]시’를 “퇴폐주의적인 씩어빠진 시, ... 극단한 개인주의, 죽음과 비애와 절망, 음란한 것 등으로 일관되어 있으며 이른바 《세련된》 외적인 미와 형식만을 추구하는 반사실주의적이며 반동적인 시”라고 정의한 부분이나, ‘퇴폐적’에 관한 용법에서 “개인의 정신세계와 고민을 사회와는 아무런 연관없이 그려나가는 방법이 바로 자본주의세계의 퇴폐적인 문예작품의 창작방법이다.”라고 한 부분, 이와 유사하게 ‘퇴폐주의’를 “...문학형식의 외적인 미와 허식을 추구하는 반동적인 부르주아 문학의 한 종류”로 정의한 부분, 끝으로 ‘퇴폐하다’의 예문으로 제시된 “카페에서 울려 나오는 색정적인 퇴폐한 자[재]즈음악” 등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¹⁸⁾ 이러한 퇴폐와 타락, 정조(貞操)의 문제와 같은 풍기단속의 담론들은 특유의 미학/정서와 연계됨으로써 개별 주체들을 규율하는 담론적 실천으로서 기능해왔다.

관련해서 조선노동당의 기관지 『근로자』는 ‘우울분자’라는 명명을 통해 이들을 척결해야 할 다양한 ‘분자들’ 중 하나로 지목한 바 있다. 김홍중¹⁹⁾은 “우울

18)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대사건』,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p. 763.

19) 김홍중, 『마음의 사회학』, 파주: 문학동네, 2009, p. 226.

자”를 “행동이 아닌 관조”를 그 “실천양식”으로 하는 주체로 분석하는데 이러한 분석은 권장·독려되는 지배적 정념에 사로잡혀 거침없는 실천을 강조하는 북한체제에서 이들 우울한 자들의 태도와 감정-관조와 성찰-을 적절하려는 권력의 의지를 이해하기 위한 통찰을 제공한다. 요컨대, 명랑함과 고상함의 혁명적 내서널리즘과 퇴폐와 멜랑콜리의 ‘반혁명’(망국)의 담론구조를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상개조 사업의 이름으로 진행되어 온 군중노선의 인간개조 프로젝트는 이처럼 특정한 정념의 배제와 권장의 방식이 결합함으로써 이루어져 왔다. 그리고 이러한 ‘진정성’이라는 내면적 토대위에 ‘생기발랄’(명랑)한 감정기제를 그 실천기풍으로 권장하였다. 앞서 김일성의 언급을 다시 인용해보면,

“우리는 지난날 일본제국주의가 남겨놓고 간 모든 타락적이고 퇴폐적인 유습과 생활태도를 없애고 생기발랄하고 약동하는 새로운 민주노선의 민족적기풍을 창조하는 거대한 사상개조사업을 하여야 하겠습니까.”²⁰⁾ (강조는 필자)

풍기단속은 그 이념과 실천의 기초에서 외적으로는 이와 같이 정념의 내서널리즘을 구획 짓고 내적으로는 특정한 정체성 집단의 ‘속성·자질’을 ‘문제적인 것’으로 간주하면서 성별, 연령, 경제적·정치적·혈연적 기초 및 행동 양태 등 특정 개인과 집단의 세부적 자질에 따라 관리와 통제의 선을 만들어내는 체제였으며 특정한 감정체계는 개인과 집단의 ‘문제적 자질’을 표현하는 것으로 연결되었다. 북한은 이러한 ‘문제적’ 개인/집단에 귀속된 속성들을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위협을 담지한 것으로 규정하는 정향을 유독 강하게 나타내며 냉전체제의 일상적 ‘문화 침습’의 담론과 ‘감염’의 논리를 발전시켜왔다. 특히 ‘노동을 기피하는 습벽’, ‘반항 의식’, ‘부랑성’, ‘게으름’ 등 사회주의 국가의 생산성 프로젝트를 어지럽히는 정념을 지닌 자들과 “새것에 민감한” 청(소)년 등에 대한

20) 김일성, “민주선거의 총화와 인민위원회의 당면과업,” p. 426.

문화적·사상적 보호의 담론을 줄곧 강조해왔다.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 ‘순박성’에 대한 담론을 들 수 있다. 『조선청년의 장점』이란 책의 목차 중 일부를 보면 북한 청년들의 ‘품성’ 중 대표적인 것으로 “순박성”을 들고 있다.

“우리 청년들만큼 조직성과 규률성이 강하고 근면하고 순박한 청년들은 세상에 없을것입니다.”²¹⁾ (강조는 필자)

“미국에서는 정부의 비호밑에 끊임없이 썩어빠진 생활양식을 퍼뜨려 수많은 청소년들이 타락의 길을 걷게 하고 있다. 그러나 ... 우리 청년들은 그 어떤 잡사상과 온갖 불건전한 부르주아적생활양식, 날라리, 말세기적취미와 부화방탕, 건달사상과 태만, 방종, 사기협잡 등에 물젖지 않으며 사업과 생활에서 수정같이 맑고 깨끗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²²⁾ (강조는 필자)

“사람들은 복잡한 사회환경속에서 깨끗한 량심을 지니고 순진하고 소박하게 살아나가야 그 어떤 불건전한 사상문화적 구속에서도 나쁜 영향을 받지 않고 자주적인간으로 참된 삶을 누릴수 있다. 혁명하는 사람들이 순박하여야 혁명적지조와 절개를 순결하게 지키며 성스러운 혁명의 한길로 곳곳이 걸어나갈수 있다. 우리 인민은 예로부터 순박성을 미덕으로 여겨오면서 자식을 키워도 고지식하고 순박한 참된 인간으로 키우려했고 며느리를 얻어도 순박한 처녀를 택하려 하였다.”²³⁾ (강조는 필자)

‘명랑함’은 식민지시대와 한국의 독재체제에서도 매우 강조되고 권장된 정념의 한 양태였다. 식민지시대 총독부의 ‘도시 명랑화’ 정책을 분석한 소래섭에 따르면 ‘명랑’의 반의어는 “불결, 불량, 오염, 범죄, 퇴락, 퇴보”와 같은 현재의 용법과 더불어 그 외에도 “‘저급’, ‘퇴폐’, ‘난잡’, ‘침울’, ‘불온’ 등”도 포함된다고 하면서 “‘건전’과 동의어”라고 분석하고 체제를 위협하는 것과의 연관

21) 최정현·김미애, 『조선청년의 장점』, 평양: 금성청년출판사, 1991, p. 122.

22) 최정현·김미애, 위의 책, p. 134.

23) 최정현·김미애, 위의 책, pp. 131~132.

속에서 총독부의 의도를 파악하고 있다.²⁴⁾ 이러한 순박하고 소박한 감정은 ‘진정성의 체제’로서 북한체제를 대동·발전시킨 역사적인 근본 정념으로 삼고 있으며, 풍속을 건전하게 보전함으로써 집단주의적 공공성을 지킬 수 있는 내적 자질로 독려되고 있다. 또한 식민지시기 총독부의 ‘도시 명랑화 정책’과 유사한 담론들이 북한의 공식문헌에서 제시되는 것은 흥미롭다. 독자투고 형식의 글에서 한 여성 주민은 ‘옥류관’으로 식사를 하러 갔던 날, 정장을 차려입은 다른 가정의 모습에 자신을 비추면서 “출근할 때 입던 수수한 옷차림 그대로” 입고 식당에 나선 자신의 “안이함”을 반성한다. 단정하고 수수한 옷차림을 사회주의 인민의 미덕으로 상찬하지만 이는 때와 장소를 가려 옷을 ‘차려입은’ “고상하고 문화적인” 의복 예절을 따라야 의미가 있다. 사회주의적 인민으로서의 단정하고 수수한 외양은 공간적으로 구획된 문화적 의복규율의 방식으로 표출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한 기자는 “금요로동현장으로 오가는 짧은 길에서도 작업복차림이 아니라 문화적인 차림새를 갖춘 처녀들의 사상정신세계와 문화생활면모를 충분히 엿볼수 있(었다)”고 술회할 수 있는 것이다.²⁵⁾ 이처럼 풍속과 문화에 대한 통제는 특정한 감정을 생산하고 배제하는 정념의 정치와 매우 밀접한 연관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그에 따른 특정한 주체화의 양식을 배태해왔다.

Ⅲ. 유기적 규범과 ‘품행’으로서의 자본주의/사회주의

북한은 2016년 제7차 당 대회를 앞두고 주민들의 헤어스타일과 복장 등에 대한 단속에 나서면서 적발된 사람을 동원현장에 보내고 있다고 보도되었다. ‘규찰대’와 ‘비사회주의 검열그루빠(당 지도소조 검열대)’가 중심이 되어 장마

24) 물론 소래섭은 책에서 총독부의 의도와 용법 외에도 다양한 주체들의 명랑을 둘러싼 사용법과 계보들을 흥미롭게 파헤치고 있다. 소래섭, 『불온한 경성은 명랑하라: 식민지 조선을 파고든 근대적 감정의 탄생』, 서울: 용진지식하우스, 2011.

25) “옷차림 하나에서도.” 『조선여성』 3호, 2004, p. 45.

당 여성의 머리모양과 청바지, 치마 길이를 단속하는 등 이른바 “자본주의적 요소”를 적발해 사회의 “풍기문란” 현상을 통제함으로써 사회질서와 규율을 다잡으려 했다는 것이다.²⁶⁾ 당 대회라는 국가 최대행사를 앞두고 대대적으로 벌어진 북한관 ‘공공질서 확립’ 캠페인은 북한체제의 ‘공공성’의 감각이 풍속에 대한 통제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음을 선명히 보여주었다. 이처럼 북한체제의 풍기단속의 담론과 실천은 식민지시기부터 두드러지는 양상인 ‘파시즘적 공공성’을 냉전의 문화규범으로 전환시킨 통치 테크놀로지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조관자²⁷⁾에 따르면, 북한은 공식적으로 “사회주의생활양식 확립의 근본원칙은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아 창조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사회주의적 내용’은 당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 주민을 분할통치하는 차별정책”이었고 이러한 차별이 선명해질수록 ‘민족적 형식’은 “식민지의 기억을 반복하며 배양’함으로써 “위기와 실패를 무마하는 이데올로기”로 작용했다. “1948년 이후 북한에서는 일상의 전시 동원화를 민족적 형식으로 갱신시켜왔다. 황민화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은 그 민족적 형식의 지배를 받으며 새로운 식민지에서 살아온 셈이다.” 바꿔 표현해보면, 북한체제는 ‘사회주의라는 외피’를 통해 ‘파시즘적 공공성’의 질서로 개별집단을 동원한 주체형성의 동학을 드러낸 체제였다.

풍기단속과 공공질서 확립의 연관 메커니즘에서 드러나는 북한체제의 공공성의 감각은 ‘집단주의’로 요약되는 ‘유기적 규범’의 체제운영원리와 이를 위협에 빠뜨리는 자본주의-문화-습성의 ‘침습’과 ‘감염’에 따른 ‘유기적 체제’의 균열에 대한 공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냉전은 유기적 체제의 미시적 질서를 지탱하는 미시권력으로 “특정한 방식의 작동을 통해 주체의 욕망을 생산·조절하는 기체이자, 미시적인 일상생활의 층위에서 신체와 정신을 훈육시키는 원리”²⁸⁾라고 할 수 있다.

26) “북, 당 대회 앞두고 머리·복장 단속 강화.” 『RFA』, 2016년 4월 2일, https://www.rfa.org/korean/in_focus/ne-jn-04012016153530.html(검색일: 2017.7.15.).

27) 조관자, “파시즘적 공공성의 내파와 재건.” 윤해동 외, 『식민지 공공성: 실체와 은유의 거리』, 서울: 책과 함께, 2010, pp. 183~184.

‘풍기단속’은 일반적으로 “선량한 풍속”과 “선량한 풍속을 침해하는 행위”리는 규정 아래 성(젠더, 취향, 행동유형, 옷 입는 법 등등에 대한 표준화된 이념을 만들어가면서 이를 토대로 주체들의 차이를 법적 처벌의 기준으로 만들어가는 형태를 취한다. 그러므로써 풍속통제는 일상에 대한 국가관리 체제를 형성했다. 이처럼 풍속통제는 특정한 취미와 문화, 기호, 행동유형을 “선량한 것(또는 건전한 것)”으로 구별하고 이 구별을 위한 척도를 법·규범의 기준으로 정립하는 방식을 취한다.²⁹⁾ 이러한 표준화된 행동유형을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로 연관시키면서 자본주의/사회주의를 하나의 ‘품행(conduct)’으로 표상한다. 이와 관련해서 한 탈북자의 구술은 흥미로운 대목을 전해준다.

“자본주의라는 얘기는 주로 어떤 때 이제 자본주의 얘기를 많이 붙이냐면, 황색. (면담자 : ‘황색바람’할 때 황색?) 응. 황색. 이때 자본주의 날라리 황색. 이런 얘기를 자본주의를 많이 붙이고. 그 다음에 의류 있잖아요? 옷. 그 다음에 문화 이런 거는 자본주의 풍조, 문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자본주의라는 얘기를 앞에 일상적으로 잘 붙이는데. 비사는 주로 경제활동이에요. (중략) 그러니까 나만 먹고 살지 마라 이제. 그거지 이제. 불법을 하지 마라. 기본적으로 문화는 자본주의로 보시면 되요.”³⁰⁾

북한에서 ‘자본주의적인 생활(태도)’라는 것은 주로 주변과 다른 ‘튀는 외양과 품행 일반’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한 여성 구술자는 대학시절을 떠올리면서 액세서리는 “꿈도 꾸지 못”한다고 손사래를 치면서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자본주의적인) 그거는 자기네가, 교수가 자기가 인식한 걸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을 던진 거지. 000이는 뭐 손이 아름다워지려고, 부르주아처럼 손이 아름다워지려고 그러는가 이런 식으로 빈정대고. (중략)

28) 백원담, “냉전연구의 문화적·지역적 전환 문제.” 『중국현대문학』 제75호, 2015, p. 131.

29) 권명아, “음란함과 죽음의 정치,” pp. 40~52.

30) “사례1 구술녹취록, 2017 I/40.”

그러니까 남이 안 하는 걸 특별히 했으니까.³¹⁾

이처럼 자본주의는 ‘정치경제적’ 이념체계 혹은 사상체계가라기보다는 문화적인 것, 정서적인 것, 감각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하여 자본주의 문화는 하나의 서구적-품행으로서, “찍하면 리혼”을 하고 “서양식의 옷차림과 몸치장”을 하는 모습이 지목된다.

“부르조아자유화 바람은 특히 젊은 사람들속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 청년들은 찍하면 벌지 않은 일로 리혼하고 있으며 서양식, 왜놈식의 본을 따서 옷차림과 몸치장을 보기도 흥측하게 하고 다니고 있다.”³²⁾

또한 여성에 대해서는 “역스러울 정도로 징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는 구두”를 신고 “우리 식이 아닌 옷과 화장을 하고 요란스럽게 차리고 거들먹거리는”, “사소한 난관에서 가정불화를 일으키고 소란스러워지는” 것과 같은 ‘처녀’들의 이른바 ‘몸가짐과 행실’을 ‘우리 식이 아닌 것, 자본주의적인 것’으로 비판한다. 그밖에도 “처녀들이 양장을 할 때 치마를 짧게 해 입는 것”, “와이샤쯔 자락을 바지 밖으로 내어 입는 행위”, “남녀 분간이 힘들 정도의 더부룩한 긴머리”, “신발을 잘 닦지 않는 등 위생적이지 못한 불결한 차림” 등이 지적된다. 특히 청바지는 ‘자유화’ 바람 가운데 “날라리를 부리면서 사회질서를 문란시키고 불량행위를 하며 장사질과 미신행위까지도 하고 술풍에 빠지는 등 온갖 비사회주의적 현상”을 발생시킨다고 한다.³³⁾ 또한 자본주의가 미적 감각이자 문화로서 금지되는 것은 특히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풍속의 비판과 단속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학생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비사회주의적 현상’들로

31) “사례5 구술녹취록, 2017 I/39.”

32) 정영태, “북한의 「전국 당세포비서 대회」 개최 배경과 전망.” 『통일정세분석 2007-11』, 서울: 통일연구원, 2007, p. 8.

33) 이은숙, “북한 사회의 체제유지 기제에 관한 연구.” 『통합연구를 위한 북한 실태 재조명Ⅱ』(2008년도 상반기 통일학 기초연구 학술심포지움(제2차) 자료집), p. 90.

“외국상품에 환상을 가지고 들떠’ 다니거나 ‘색다른 물건에 눈을 파는 현상’ 등 ‘우리 식 사회주의와 인연이 없는 현상들’³⁴⁾이 지적된다.

소위 ‘술풍(風)’ 또한 사회주의 질서를 해하는 중대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술풍’은 한편으로는 집단주의적 긴장의 해체, 혹은 자유화를, 다른 한편으로는 체제의 미래에 대한 회의감에 젖은 분위기를 표현하는 것으로 진단되면서 당국의 주요한 단속대상이 되고 있다.

“술을 마시기 좋아하고 술풍을 조장하는 사람들은 반당반혁명행위, 이적행위를 하게 된다.”³⁵⁾

“적들은 우리 공화국을 없애치우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높은 대적 관념을 가지고 사회주의 수호전에 나서야 할 우리가 술풍에 물젖어 안일하게 생활해서는 안된다. ... 술풍은 적들의 반공화국 모략책동에 동조하는 부르조아생활풍조를 끌어들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똑똑히 명심해야 한다.”³⁶⁾

『자유북한방송』이 입수한 7쪽 분량의 내부강연문건, 「술풍(風)을 없애기 위한 투쟁을 전 사회적으로 힘있게 벌리자」(조선로동당출판사, 2005)에서는 ‘비사회주의적 술풍’의 현상들로, ▲ 술이 없으면 손님접대, 병문안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릇되게 생각하는 현상 ▲ 수술 후 의사들에게 술을 먹이고 또 먹는 것이 관례로 굳어지고 있는 현상 ▲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찍하면 술판을 벌이는 현상 ▲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나 각종 동원 출장, 훈련 등 외지생활을 하면 당연히 술을 마셔야 하는 것으로 여기는 현상 ▲ 여러 가지 턱놀음을 하면서 술판을 벌이는 현상 ▲ 업무시간, 경비근무 시간까지 여럿이 모여앉아 버젓이 술을 마시는 현상 등을 꼽고 있다.³⁷⁾

34) 이은숙, 위의 논문, p. 84.

35) 정영태, “북한의 「전국 당세포비서 대회」 개최 배경과 전망,” p. 9.

36) 「술풍(風)을 없애기 위한 투쟁을 전사회적으로 힘있게 벌리자」,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5. 안윤석, “北, 음주문화 바로잡기 위해 캠페인 벌여.” 『노컷뉴스』, 2005년 11월 15일, <http://www.nocutnews.co.kr/news/98221>(검색일: 2017.9.26.)에서 재인용.

문건에서는 동구권 체제 붕괴의 한 요인으로 술풍을 있었다면서 고르바쵸프 시대 소련의 1985년 금주령에도 불구하고 술풍을 막지 못해 체제 붕괴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조이스(W. Joyce)의 연구에 따르면, “알코올 중독과 사회주의는 양립할 수 없다!”는 구호가 소련의 집권 기간 내내 울려 퍼졌다고 한다. 음주문화와 관련한 공공정책은 “문화혁명 중 가장 어려운 과제”로서 “인민의 행동에서 자본주의 태동에 대항하는 투쟁의 차원”으로 실행됐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음주문화와 알콜 중독의 문제는 경제적·도덕적·법적·교육적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힌 사회적 요소이자 뿌리 깊은 문화적 패턴으로서 사회의 전반적인 구조개혁과 별개로 그 문화가 뿌리 뽑히기를 원하지 않는 아래로부터의 저항이 존재했다.³⁸⁾ 최근 김정은정권 또한 「사회주의생활양식을 침해하는 자들을 엄격히 처벌함에 대하여」라는 제하의 인민보안성 작성 포고문을 통해 ‘밀주’와 ‘술풍’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고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술풍을 조장시키는 행위
 - 식당에서 밤늦게까지 봉사하면서 술풍을 조장시키는 행위
 - 비법적으로 술을 판매하거나 봉사하는 행위
 - 살림집에 식당을 꾸러놓거나 길거리와 시장을 비롯한 공공장소들에서 술과 음식을 파는 행위
2. 밀주행위
3. 승인 없이 가라오케 봉사를 하는 행위
4. 술을 마시고 싸우거나 시설물을 파괴하는 불량행위
5. 술풍 조장행위를 살피고 신고하라

37) “북, ‘술풍은 사회주의 붕괴 초래’”, 『NKchosun』, 2005년 11월 17일, <http://nk.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73043>(검색일: 2017.9.26.).

38) Joyce, W, “The Battle Continues: Gorbachev’s Anti-Alcoholism Policies.” In Joyce W. eds., *Social Change and Social Issues in the Former USSR, Selected Papers from the Fourth World Congress for Soviet and East European Studies, Harrogate*. London: Palgrave Macmillan, 1990, pp. 95, 111~112.

6. 포고를 어길 시 영업증지 또는 폐업에 처한다.³⁹⁾

‘술풍’에 대한 대대적 단속은 ‘술풍’을 통한 통치로 연장된다. ‘냉전의 사회질서’가 작동하는 회로로서 풍속과 문화에 대한 통제는 정치적 문제와 연계된다. 특히 북한에서 풍기문란에 관한 건은 간부들에 대한 정치적 통제의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북한 사회에도 여론과 민심의 형성과 공유가 무시 못 할 수준에 이르렀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국가정보원의 정보위 보고에 따르면 “북한 당국이 민심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당 조직을 통해 주민생활 일일보고체계를 마련하고 음주가무와 관련한 모임도 금지하는 한편 정보유통 통제도 강화”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⁴⁰⁾

냉전의 사회질서 하에서 벌어지는 문화적 금기들은 풍기문란을 통해 문화와 정치가 만나 특유의 통치 논리가 일상의 차원에서 관리, 실행되는 양식을 보여준다. 국가는 개인의 사소한 일상적 품행 차원에서부터 국가 상실의 서사를 도출해내고 반복적으로 내면화시킴으로써 다양한 층위와 형태의 국가 개입을 정당화하려고 한다. 자본주의/사회주의를 하나의 ‘품행’의 차원으로 전도시키는 북한의 냉전문화는 한편으로는 경제건설의 구조가 이미 상당한 수준에서 사실상 자본주의의 경제적 메커니즘으로 운용되는 현실 속에서 자본주의를 문화로, 감각으로 전환시킴으로써 ‘변화’의 기의를 번역·봉합해내려는 시도이며, 난관의 표현이다.

3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보안성, 「사회주의생활양식을 침해하는 자들을 엄격히 처벌함에 대하여」, 2017.8.21. 최우석, “김정은, 문재인 정부 초기 대대적 사상검열 ... 한 달 뒤 800만 달러 대북지원 결정.” 『데일리 월간조선』, 2018년 5월 21일, http://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asp?idx=4113&Newsnumb=2018054113(검색일: 2018.7.15.)에서 재인용.

40) “북, 술풍 단속 빌미로 사상통제? ... 세 명이상 술 마시지 마라.” 『Daily NK』, 2017년 11월 22일,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4500&num=111605>(검색일: 2018.7.15.).

IV. 냉전문화와 편집증(paranoia) : ‘퇴폐’와 ‘망국-체제붕괴’의 논리

냉전(분단)체제 하에서 풍기문란을 경계하는 담론과 풍속을 해치는 개인/집단에 대한 담론은 단지 퇴폐적 생활태도를 보이는 일부 ‘문제적’ 개인/집단을 비판하는 수준을 넘어서 내전적·주권적 서사로 연계·증폭되는 양상을 보인다. 즉, 냉전(분단)체제 하에서 문란함과 퇴폐와 같은 풍기문란과 관련된 규정들은 단지 당대의 세태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것을 넘어 ‘조선’이라는 국가체제정체성의 역사적 의미를 끊임없이 환기하고 재기술하는 개념이 된다.

‘반미(反美)주의’를 체제의 이데올로기적 존재조건으로 삼고 있는 사회담계 북한의 『정치사건』에는 ‘미국식 생활양식’을 별도 항목으로 선정해 설명을 달고 있다. 여기서 ‘미국식 생활양식’은 “썩어빠진 말세기적 생활습성과 생활방식[으로] 극단적 리기주의, 개인향락주의에 기초를 둔 부화방탕과 모험, 사기와 협잡, 강탈과 살인, 인간증오, 몽매주의 등의 생활양식”⁴¹⁾으로, 그 정의에서도 느껴지듯이 북한의 ‘사회주의적 미풍량속’의 가장 원거리에 있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미국식 생활양식’은 남한에도 지배적인 영향력을 끼침으로서 “민족적 공통성”⁴²⁾을 해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미제국주의와 남한의 생활양식과 ‘풍조’를 ‘세기말과 망국(亡國)’의 형상과 연관 짓는 풍기단속의 내셔널리즘에서 보듯이 이러한 풍속의 통제와 검열은 퇴폐풍조와 성적 문란함 등 풍기문란의 사회 정조(貞操)를 체제위기/수호라는 붕괴의 시퀀스로 증폭시킴으로써 개인과 집단을 주체화하려는 냉전의 일상성과 ‘통치성(governmentality)’을 구성하고 있다.

“우리사회의 일심단결이 파괴되고 적대계급이 발붙이고 준동할 수 있는 틈이 생겨나며 민족의 생명인 민족성까지 다 잃게 된다. 부르조아 사상 문화적 침투를 짓부시기 위한 투쟁을 강하게 벌려야 한다.”⁴³⁾

41) 사회과학출판사 편, 『정치사건』,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p. 412.

42) 사회과학출판사 편, 위의 책, p. 413.

(강조는 필자)

“망국은 순간이요 복국은 천년이라는것 ... 잃기는 험해도 찾기는 힘 든것이 바로 조국이라는 뜻입니다. 순간에 잃은 조국을 찾느라고 수십 년, 지어는 수백년의 고생을 해야 하는것이 이 세상의 준엄한 리치입니다.”⁴⁴⁾ (강조는 필자)

이러한 전염의 은유와 몰락의 서사는 ‘퇴폐’에 관한 토비 클락의 설명을 통해 그 용법을 이해해볼 수 있다. 그는 『20세기 정치선전 예술』이라는 책에서 ‘퇴폐’라는 말의 출현 및 변화과정을 고찰하면서 “문명의 전반적 타락”이라는 정의를 시작으로 도시 대동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부작용들을 ‘병리학’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쓰이다가 “나약함과 무질서”에 대한 의미를 통해 “정치적·인종적 불순성과 전염”의 언어로 규정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하고 있다.⁴⁵⁾ 김정은정권은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지난 5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에서 「비사회주의적 현상을 철저히 뿌리 뽑고 사회에 건전하고 혁명적인 생활 기풍을 확립해 나가자」라는 제하의 일반 간부들 대상의 ‘내부강연제강’ 자료를 통해 “사회주의 본태는 한 마디로 집단주의”이라고 요약하면서 이 “집단주의를 고수하고 지켜내지 못하면 사회주의는 무너진다”고 역설했다.⁴⁶⁾ 역사적인 남한에서의 남북정상회담과 전례 없는 평화무드 속에서 ‘자유의 분위기’의 북한 사회 내 확산을 우려하고 집단주의의 균열을 편집증적으로 의심하는 모습을 살펴보기 위해 권현익이 미국사회에서 나타났던 편집증 문화와 냉전의 사회질서의 연관성을 통해 고찰한 기술을 참조하는 것은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43) 정영태, “북한의 「전국 당세포비서 대회」 개최 배경과 전망,” p. 9.

44) 김정란리선녀, 『위인의 식견』, 평양: 금성청년출판사, 2011, p. 16.

45) 토비 클락 지음, 이순령 옮김, 『20세기 정치선전 예술』, 서울: 예경, 2000.

46) 이윤걸, “북한 당 간부들 5월 강연자료 단독입수 ‘비사회주의 현상 뿌리 뽑아야.’” 『일요신문』 제1364호,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301816(검색일: 2018.7.15.).

“편집증 문화라는 것은 20세기 미국 국내 정치에서 극우파가 ‘비미국적 행위’에 맞서 보여 준 종교재판적 호전성을 일컫는 개념이었다. 이런 문화는 국가 안보의 문제 ... 를 이유로 동성애자들을 공직에서 추방하는 것처럼 본질과 무관해 보이는 집착과 큰 관련이 있었다. 국가 안보가 당시에 어떻게 ‘오염(공산주의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나 ‘격리(이념적 감염에 의한 불안정 상태)’ 같은 생물학이나 병리학의 용어와 함께 상상되었는지, 이러한 상상이 어떻게 대외정책뿐만 아니라 가정생활의 규범과 개인정체성의 윤곽에도 영향을 미쳤는지, 이러한 맥락에서 봉쇄가 어떻게 물질적 정치 관행인 동시에 일반화된 문화적 메타포였는지, 티프하고 자유주의적인 ‘미국의 남성성’의 형성이 어떻게 미국의 세기를 만드는 데 핵심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서로 연관이 없어 보이는 문화 조류와 정치적 사건 사이에 특정한 연관성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같은 문제들은 부상하고 있는 미국 냉전 문화사 학계에서 제기한 도발적인 질문들이다.”⁴⁷⁾ (강조는 필자)

물론 미국의 냉전문화는 미국문화를 유럽에 적극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서구의 정체성을 새롭게 재구성하려는 ‘정치적 확장전략’의 일환이었다는 점⁴⁸⁾에서 북한의 그것과 비교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다만, 냉전에 관한 ‘문화적 전환(cultural turn)’과 문화냉전에 대한 인식을 통해 정치와 문화의 관계를 중심으로 북한의 내적 질서를 이해하는 시야를 트고, 특히나 “역사를 구체적인 사회질서화의 과정 및 그런 질서화의 다양성을 설명하는 과정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⁴⁹⁾(강조는 필자) 커다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냉전연구의 문화적 전환의 배경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우선 선전과 심리전이 어떻게 국내외의 모두에서 행해졌는지에 대한 관심과 냉전 당시 보통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했는지에 대한 물음, 그리고 갑작스럽고 평화롭게 냉전이 종식되는 방식이 전통적인 냉전사에 던진 새로운 질문들, 마지막으로 정치 및 ‘국민적 특성’을 문화에 기초해 설명하는 몽테스키외와 토크빌로

47) 권현익 지음, 이현중 옮김, 『또 하나의 냉전: 인류학으로 본 냉전의 역사』, 서울: 민음사, 2013, p. 166.

48) 권현익, 위의 책.

49) 권현익, 위의 책, p. 181.

대표되는 보다 오래된 전통의 영향에 따른 것이었다.⁵⁰⁾ 문화적 차원이 매개된 냉전에 관한 논의는 한편으로는 대중문화가 생산, 배포, 해석되고 도전받는 방식과 관련된 ‘문화 냉전(cultural Cold War)’의 차원과 다른 한편으로는 사고 방식, 태도, 행동패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냉전 문화(Cold War culture)’를 포괄한다.⁵¹⁾ 찰스 암스트롱 또한 ‘The Cultural Cold War in Korea, 1945-1950’에서 한반도적 맥락에서 나타난 냉전의 문화화에 대한 인식 필요성을 제시했다.

“냉전의 양측이 보다 미묘하고, 정치적이며, 종종 은밀한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 진영의 ‘심장과 마음’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을 내부로부터 전복시키기를 희망했다. 냉전은 양측의 선전과 심리전의 거대한 캠페인이었다. 선전 포스터와 라디오 방송에서부터 세련된 문학잡지, 재즈밴드, 발레단, 그리고 교향악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화 자원은 최근에 ‘문화 냉전’으로 불리게 된 무기였다.”⁵²⁾ (강조는 필자)

북한체제가 줄곧 강조하는 “끈질긴 자본주의 문화침습”에 관한 편집증적 불안, 그리고 북한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문화적이고 심리적인 기표를 통해 규정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냉전의 문화화라는 내적 논리 속에서 이해해 볼 수 있다. 예컨대, 북한은 자본주의를 ‘극단적 리기주의’가 판치는 ‘타락한 문명’이자 ‘퇴폐’한 ‘부르조야생활풍조’로 규정하고 이에 반해 사회주의를 ‘건전하고 고상한’ ‘집단주의 문화’가 꽃피는 ‘진정한 문명’으로 규정한다. 이는 자본주의에 관한 “투명성”을 제거하고 “신비화”된 이미지를 떠올리게 함으로써 그것이 우리 신체에 침투했을 때 벌어질 온갖 “재앙의 이미지”들을 제시하면서 “국가의 생존이 위기에 처할 수 있음”을 각인시킴으로써 강력한 도덕적 규율을 작동시키려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구체적인 형상으로서 다가오는 것이 아닌, 그

50) Johnston, G. “Revisiting the cultural Cold War.” *Social History*, Vol. 35, No. 3, 2010, p. 291.

51) Johnston, *Ibid.*, p. 294. 이 논문에서는 ‘문화냉전’을 ‘냉전문화’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사용한다.

52) Armstrong, Charles K., “The Cultural Cold War in Korea, 1945-1950.”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Vol. 62, No. 1, 2003, p. 71.

저 공포스런 “은유”로서만 제시된다는 점에서⁵³⁾, 이러한 담론의 형국은 북한의 권력이 지닌 이데올로기 통제력의 명징함과 외적 강력함만큼이나, 현재 북한의 문화냉전의 논리가 일정한 곤경과 관성, 혹은 무기력함 사이에서 표류하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해석해볼 수 있다.

V. 결론을 대신하여 : 곤경 혹은 관성, 무기력 사이에서

요컨대, 북한에서 냉전은 하나의 논리이자 문화였으며 북한의 사회통제체제는 그러한 논리와 문화를 혼드는 일체의 사상, 정체성들, 문화조류들을 검열·차단하기 위한 규범의 총체였다. 냉전사회질서 하에서 벌어지는 문화적 금지들은 ‘문화’와 ‘정치’가 만나는 특유의 통치 논리가 ‘일상’의 차원에서 관리, 실행되는 양식을 보여준다. 국가는 개인의 사소한 일상적 품행 차원에서부터 국가 상실의 서사를 도출해내고 반복적으로 내면화시킴으로써 다양한 층위와 형태의 국가 개입을 정당화한다. 이러한 점에 착목해 본 논문은 북한의 풍속 관련 담론의 구조와 논리들을 문화로서의 냉전과 냉전의 사회질서의 구축, 그리고 정념의 내셔널리즘의 구획 등을 통해 살펴보았다. 풍속의 검열과 단속은 북한의 국가형성과 체제형성의 거대한 운동 속에서 ‘근대화’와 ‘사회주의적 인간형’을 목표로 일상과 문화의 영역을 매개로 북한주민의 ‘주체성’을 특정한 방향으로 형성해가는 과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었다. 그러한 ‘근대화’의 과정은 ‘서구문화’로 표상되는 ‘자본주의’에 대한 양가적 태도를 내재하는 것으로서 한편으로 물질적 근대화에 대한 열망을, 다른 한편으로는 고유한 민족적 정서와 미학, 정신 혹은 영혼의 망실을 우려하는 정념의 정치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풍속검열과 단속의 ‘주체화의 역학’은 식민과 일제 식민지 파시즘의 유산을 변형된 형태로 활용하는 것이고, 동시에 새로운 인간형을 형성하는 탈식민/사회주의 근대화의 이념을 담고 있으면서, 또한 ‘퇴폐/문란함’을 미 제국주의-

53) 한재현, “질병으로서의 자본주의: 북한의 반자본주의 통치담론.” 『동북아연구』 30권 1호, 2015.

남한과 상징적으로 연관 짓는 특유의 냉전적·문화적 내셔널리즘과 연계된 혼재된 형태의 통치 테크놀로지의 형성과정이었다.

즉 본 연구가 ‘풍기문란’이라는 연구소재를 통해 말해보고자 하는 것은 그저 우리에게 낯선 북한 일상생활의 가십거리를 발견해 기술하고자 함이 아니라, 퇴폐풍조와 사회질서의 문란함 등 풍기문란의 사회 정조(貞操)를 망국/세기말/체제위기/붕괴 등 특유의 주권적 내셔널리즘의 의미계열과 연관 지으면서 개인과 집단을 주체화하려는 냉전/분단 통치성(governmentality)의 내적 논리를 개고라적으로 드러내고자 함에 있다. 이를 통해 김정은시대에 들어와 뚜렷해지고 있는 문화와 생활양식의 ‘현대화’ 작업의 정치적 함의는 이러한 생활양식과 사회문화적 풍조에 미학적/감성적 분할과 배치의 내밀한 변화를 이해할 때 보다 명확해진다는 문제의식 하에 그 풍기단속의 역사적 형성 속에 나타나는 정념의 정치를 분석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정념의 정치를 통해서 나타나는 북한체제의 ‘공공성’의 감각은 풍속과 문화에 대한 통제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음이 선명히 드러난다. 그리고 풍속통제는 특정한 취미와 문화, 기호, 행동유형을 척도로 삼아 도덕적·미학적으로 표준화된 행동유형을 자본주의 혹은 사회주의의 범주와 연관시키면서 자본주의/사회주의를 하나의 ‘품행(conduct)’으로 표상했다. 북한체제가 자본주의와 풍기문란을 하나의 미적 감각으로 표상하고 통제한다는 점은 북한의 사회문화통제가 매우 불안정하고 유동적인, 그리하여 매우 가변적인 협상과 번역의 가능성을 지닌 것으로 이해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즉,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로 양극화 된 문화적 표상 사이를 흐르는 갈등과 협상, 모방과 번역의 실천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북한의 사회통제 담론 속으로 흐르는 문화로서의 냉전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북한의 문화적 내셔널리즘의 구조와 양상을 살펴보아야 하며 현재적 시점에서 그것은 김정은 시대의 ‘모방과 번역’이라 명명해볼 수 있는 현대화 전략에서 엿보이는 혼란과 곤경에 대한 분석으로 제시될 수 있으며 이는 후속 연구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참고문헌

- 권명아, “음란함과 죽음의 정치.” 『현대소설연구』, 39집, 2008.
- _____, “정조 38선, 퇴폐, 그리고 문학사: 풍기문란의 냉전프레임.” 『여성문학연구』 22권, 2009.
- 권현익 지음, 이한중 옮김, 『또 하나의 냉전: 인류학으로 본 냉전의 역사』, 서울: 민음사, 2013.
- 김윤희, “한국 근대 신어 연구(1920년~1936년): 일상문화적 맥락을 중심으로.” 『국어사연구』 제10호, 2010.
- _____, “근대 서울의 숲, 위험관리와 민족주의 정치기획.” 『사학연구』 제111호, 2013.
- 김일성, “민주선거의 총화와 인민위원회의 당면과업.” 조선로동당출판사 편, 『김일성저작집』 제2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 김정란리선녀, 『위인의 식견』, 평양: 금성청년출판사, 2011.
- 김홍중, 『마음의 사회학』, 과주: 문학동네, 2009.
- 백옥련, 『조선사회과학술집163 민속학편: 사회주의생활문화사연구』,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10.
- 백원담, “냉전연구의 문화적·지역적 전환 문제.” 『중국현대문학』 제75호, 2015.
- 사회과학출판사 편, 『정치사건』,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 _____,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확립할데 대한 우리 당의 정책』,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
- _____, 『조선말대사건』,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 소래섭, 『불온한 경성은 명랑하라: 식민지 조선을 파고든 근대적 감정의 탄생』, 서울: 웅진지식하우스, 2011.
- 안토니오 네그리 지음, 이기웅 옮김, 『전복적 스피노자』, 서울: 그린비 출판사, 2005.
- 이온죽, “북한 사회의 체제유지 기제에 관한 연구.” 『통합연구를 위한 북한 실태 재조명Ⅱ』(2008년도 상반기 통일학 기초연구 학술심포지움(제2차) 자료집).
- 정영태, “북한의 「전국 당세포비서 대회」 개최 배경과 전망.” 『통일정책분석 2007-11』, 서울: 통일연구원, 2007.
- 조관자, “‘파시즘적 공공성’의 내파와 재건.” 윤해동 외, 『식민지 공공성: 실체와 은유의 거리』, 서울: 책과 함께, 2010.
- 찰스 암스트롱 지음, 김연철·이정우 옮김, 『북조선 탄생』, 과주: 서해문집, 2006.
- 최대석·박희진, “비사회주의적 행위유형으로 본 북한사회 변화.” 『통일문제연구』 제23권 2호, 2011.
- 최정환김미애, 『조선청년의 장점』, 평양: 금성청년출판사, 1991.
- 토비 클락 지음, 이순령 옮김, 『20세기 정치선전 예술』, 서울: 예경, 2000.
- 한재현, “일상의 사회통제체제와 권태로운 인민.” 박순성·홍민(편저), 『북한의 권력과 일상생활:

- 지배와 저항 사이에서』, 파주: 한울, 2013.
- _____, “질병으로서의 자본주의: 북한의 반자본주의 통치담론.” 『동북아연구』 30권 1호, 2015.
- Armstrong, Charles K, “The Cultural Cold War in Korea, 1945–1950.”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Vol. 62, No. 1, 2003.
- Johnston, G, “Revisiting the cultural Cold War.” *Social History*, Vol. 35, No. 3, 2010.
- Joyce, W, “The Battle Continues: Gorbachev's Anti-Alcoholism Policies.” In Joyce W. eds., *Social Change and Social Issues in the Former USSR, Selected Papers from the Fourth World Congress for Soviet and East European Studies*, Harrogate. London: Palgrave Macmillan, 1990.
- Kotkin, S, *Magnetic Mountain: Stalinism as a Civilization*. LA&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5.
- “북, 당 대회 앞두고 머리·복장 단속 강화.” 『RFA』, 2016년 4월 2일, https://www.rfa.org/korean/in_focus/ne-jn-04012016153530.html(검색일: 2017.7.15.).
- “북, 술pong 단속 빌미로 사상통제? ... 세 명이상 술 마시지 마라.” 『Daily NK』, 2017년 11월 22일,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4500&num=111605>(검색일: 2018.7.15.).
- “북, ‘술pong은 사회주의 붕괴 초래’”, 『NKchosun』, 2005년 11월 17일, <http://nk.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73043>(검색일: 2017.9.26.).
- 안윤석, “北, 음주문화 바로잡기 위해 캠페인 벌여.” 『노컷뉴스』, 2005년 11월 15일, <http://www.nocutnews.co.kr/news/98221>(검색일: 2017.9.26.).
- “웃차림 하나에서도.” 『조선여성』 3호, 2004.
- “우리 식 사회주의생활양식의 우월성.” 『우리민족끼리』 2014년 3월 23일.
- 이윤걸, “북한 당 간부들 5월 강연자료 단독입수 ‘비사회주의 현상 뿌리 뽑아야.’” 『일요신문』 제1364호,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301816(검색일: 2018.7.15.).
- 최우석, “김정은, 문재인 정부 초기 대대적 사상검열 ... 한 달 뒤 800만 달러 대북지원 결정.” 『데일리 월간조선』 2018년 5월 21일, http://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asp?idx=4113&Newsnumb=2018054113(검색일:2018.7.15.).

Abstract

North Korea's Discourses of Social Control and Logics of the Cultural Cold War
- Focusing on the Discourses on 'Custom and Manner' -

Jaeheon Han(Fellow Senior Researcher, Dongguk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d the structure and logic of North Korea's discourse related to customs through the Cold War as a culture, establishment of social order in Cold War, and the division of nationalism of sentiments(passions). The censorship and crackdown of customs are closely related to the process of forming the 'subjectivity' of North Koreans by the medium of the areas of everyday life and culture with the aim of 'modernization' and 'socialist man', in a huge movement of North Korea's nation and system formation. The process of 'modernization' embedded the ambivalent attitude of 'capitalism' represented by Western culture, and it appeared on the one hand as the desire for material modernization, but on the other hand as the political one concerning the loss of inherent ethnic sentiments, aesthetics, spirit or soul. And this 'mechanics of subjectivation' of customs censorship and crackdown was to use the legacy of colonial and Japanese colonial fascism as a modified form, and it was the mixed formation process of governmental technology connected with the unique cultural Cold War and nationalism relating 'degenerate/disruption' symbolically with American imperialism and South Korea, at the same time, including the socialist modernization ideology that formed a new human form.

Keyword : North Korea, Social Control, Cultural Cold War, Custom,
Nationalism, Passion

투고일: 2018년 11월 20일, 심사일: 2018년 12월 4일, 게재확정일: 2018년 12월 20일